

이재명 “주택 311만호 공급...생애최초 LTV 최대 90%”

수도권 ‘부동산 표심잡기’ 총력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값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이같은 방안이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기존 59만호+신규 48만호)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난다,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점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가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

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23일 “저에게 주는 표는 사회와 국민을 돌로 뜨개 같음을 조장하는 거대 양당의 폐해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의 의식 있는 지역민들이 지금의 거대 양당 구도를, 그리고 불안정한 후보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가치의 배분이고 통합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정권 투쟁을 위해 진영 간, 세대 간, 성별 간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는 실종되고, 그저 네거티브, 헐뜯기, 비리 들춰내기, 가족 비난 일색이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지금의 대선판을 보고 아주 개탄스러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비전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이 어려움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철학과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일할 때 많은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현 대선 정국에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이 사라진 것을 볼 때 그 분들의 철학과 지혜, 희생정신이 생각나 더욱 두 분이 그리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시급히 해결할 국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도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시급히 해결할 국가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청년, 국가 권력 구조 개혁 등 4가지이다.

김 후보는 호남을 자주 찾는 이유에 대해 “특별

한 연구나 인연은 없지만, 남도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정을 느껴 너무 좋았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개발과 성장에서 차별을 받았음에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용기 등 넉넉한 품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공약과 관련,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현 광주공항 부지에는 인공지는 실증단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산업을 확산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 허브역할을 해야 하고, 문화 등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면서 “전남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지를 빼고는 다 갖춘 후보가 제 별명”이라면서 “거대 양당 후보들은 역량 부족, 갈등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작 깨끗함·인격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와 차별화가 되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까지 전국 광역시도당 12개가 창당되면 새로운 물결도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면서 “당원들과 전국 조직을 활용하면서 남은 대선일까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가 만든 새로운물결은 이날 전북, 광주, 전남에서 잇따라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

최권일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행 미루고 토론에 올인하는 윤석열

거시공약도 연달아 발표 김건희 비공개 봉사활동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번 주로 검토했던 호남 방문을 순연하고 대권 가도에 중대 분수령이 될 TV 토론 준비에 매진한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3일 통화에서 “윤 후보가 이번 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틈틈이 토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TV 토론 준비는 KBS 앵커 출신인 황상우 언론전략기획단장이 총괄하고 있다. 경선 캠프에서부터 실무를 맡아온 일부 멤버를 중심으로 전담팀이 함께 뛰고 있다. 첫 토론 맞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분석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미 수백 가지 예상 질의응답을 만들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의 정책 역량을 부각하고, 이 후보의 ‘말 바꾸기’ 전략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중동 게이트도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번 토론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다고 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16차례나 토론을 거치면서 충분히 단련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방송사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27일 밤 10시’ 대신 설 연휴 초입인 ‘30일이나 31일 저녁 7시 30분’으로 토론 시간을 역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국민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연박상 데이’ 행사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이 후보에게 진면목을 보여주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 토론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설 연휴 전 호남 방문이 다시 추진될 여지도 있다.

윤 후보는 토론 준비와 별도로 이번 주 거시 공약도 연달아 선보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작으로 한동안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면 이제 경제 비전, 외교·안보 정책, 사법 개혁 방안 등 국가 지도자로서

면모를 드러내는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진지전에서 공중전으로 간다”고 표현했다.

한편,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도 관심사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평소 해오던 봉사활동을 한 뒤 추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씨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 서울 종로 보선 공천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 논의를 본격화할 분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종로에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교동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만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5곳 중 종로, 청주 상당, 경기 안성의 공천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2곳인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는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한 상태. 민주당은 애초 25일 비공개로 최고위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정 등과 맞물려 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정치 1번지’ 종로다. 이 전 대표 사퇴로 치러지는 선거에 공천할지 여부를 두고 지도부 내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

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는 역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과 당 간판 주자들이 일함을 겨뤘던 무대다.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 때문에 여전히 ‘지역구 1석’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종로에 대해 전략공천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종로 공천에서) 조강수를 둘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예 공천도 하지 않고 비워두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후보

“호남민들, 양당 구도·불안정 후보로는 국가 미래 설계 할 수 없다는 인식 가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23일 “저에게 주는 표는 사회와 국민을 돌로 뜨개 같음을 조장하는 거대 양당의 폐해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의 의식 있는 지역민들이 지금의 거대 양당 구도를, 그리고 불안정한 후보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가치의 배분이고 통합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정권 투쟁을 위해 진영 간, 세대 간, 성별 간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는 실종되고, 그저 네거티브, 헐뜯기, 비리 들춰내기, 가족 비난 일색이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지금의 대선판을 보고 아주 개탄스러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비전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이 어려움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철학과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일할 때 많은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현 대선 정국에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이 사라진 것을 볼 때 그 분들의 철학과 지혜, 희생정신이 생각나 더욱 두 분이 그리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시급히 해결할 국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도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시급히 해결할 국가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청년, 국가 권력 구조 개혁 등 4가지이다.

김 후보는 호남을 자주 찾는 이유에 대해 “특별



한 연구나 인연은 없지만, 남도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정을 느껴 너무 좋았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개발과 성장에서 차별을 받았음에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용기 등 넉넉한 품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공약과 관련,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현 광주공항 부지에는 인공지는 실증단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산업을 확산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 허브역할을 해야 하고, 문화 등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면서 “전남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지를 빼고는 다 갖춘 후보가 제 별명”이라면서 “거대 양당 후보들은 역량 부족, 갈등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작 깨끗함·인격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와 차별화가 되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까지 전국 광역시도당 12개가 창당되면 새로운 물결도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면서 “당원들과 전국 조직을 활용하면서 남은 대선일까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가 만든 새로운물결은 이날 전북, 광주, 전남에서 잇따라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용,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월 20일 조합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에그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개월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1월 24일
나비마을 영농조합법인
함평군 월야면 밑재로 1561
대표이사 정희석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월 20일 조합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에그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개월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1월 24일
함평월야배 영농조합법인
함평군 월야면 밑재로 84
대표이사 정희석

산행안내

1월23일(일)
▲광주Ki산악회 1월23일(일) 강연도상적,머항산(1073m & 대금굴, 환선굴&우암해반,롯데바위) 트레킹산행 *연주체육관03:00,동아변원03:05,롯데백점03:10,관주역03:15,문예후문03:25,비엔주자점03:30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12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신문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24일
어의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
영암군 삼호읍 산단서부로 9
청산인 황남석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동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광 신 571-7858 · 오 치 266-78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동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심 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남 남 952-1687 · 활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